

2010

5월 16일

제18권 20호 마데테스

18권 20호 마데테스 교회는
마데테스 교회를 위하여
마데테스 교회를 위하여
마데테스 교회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석교회



칼럼 column

예수님의 무소유와 법정의 무소유 ⑧

무소유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는데, 유독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게 되는가? 아니다. 수 13: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고 말한다. 이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이 되어주시고, 다른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는가? 만약 레위지파처럼 모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주신다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다면 당장 이스라엘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단 광야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만나가 내려져야 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존을 위한 노동도 없이 하늘에서 주어진 양식으로 육신을 지탱하며 하루하루 사는 삶이야말로 사실적 무소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소유가 없이 평생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으며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시고 대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참된 기

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되 땅을 소유해서는 안되고, 땅을 힘으로 의지해서도 안된다. 그것이 이방나라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존재하는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명하셨다. 토지는 여호와와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레 25:23)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년이라는 제도를 두신다. 가난으로 인해 기업의 열매를 판 후 여전히 가난하여 다시 무를 힘이 없을 때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회년이 되면 형제의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회년의 제도 아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유가 없다. 설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영원한 소유가 못되고 회년이 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회년은 사라지고 대신 약자와 강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세속의 길을 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참된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신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참된 무소유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에게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시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류민, 나그네로 산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날 설교



비유의 해석 마 13:18-23

●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본질 ●

에당초 천국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룩들과 두루 도는 불 갈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는 접근할 수 없으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저주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입이 닿도록 인간의 본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믿음, 복음, 천국, 열매, 구원,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할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간과한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들을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신에게 달린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좋은 땅이 되자’는 교훈으로 일관하는 것도 인간의 본질을 간과한 해석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효도르(격투기 챔피언)를 KO시켜라. 그러면 1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1억이 탐이 나서 효도르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1억이 탐이 나기는 하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은 효도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을 생각조차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효도르를 이기는 것보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 버린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스스로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진 인간

으로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능력이 있게 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간은 분명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을 알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저주에 갇힌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주에 갇힌 나를 구출하여 생명에 있게 하신 은혜의 분량을 깨달아가는 인간으로 새롭게 달라졌다는 것이지 본질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 ●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밭의 상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 스스로 고칠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막을 힘이 없고,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져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간과한 억지이며 복음과 상관없는 선동적인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 역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 도대체 그것이 뭐데?’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모두 가짜라는 선언을 받고, 또 가짜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신앙생활을 가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쫓아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

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종교적 실천과 행함에 가려져 있는 자신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대단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짜로 판명합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로 인해 불들려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나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우리는 영접했기에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그 예수가 가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여긴 것이 착각인 것처럼,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보게 되면 다른 인간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너털너털한 결레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돌을 향해서 금이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부디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짜다'는 선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간상이 복음이 주어짐으로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뿌려짐으로써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 밭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평소에 자신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로 포장된 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을 보게 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도덕과 윤리

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뿌려진 것을 악한 자에게 빼앗깁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악한 자에게 뿌려진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은 뿌려진 씨가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도 알고 있는 씨의 가치를 정작 밭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다는 것조차 의식을 못합니다. 이러한 밭이 악한 자에게 대항해서 씨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환난이나 박해에서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환난과 박해가 주어지면 기쁨은 사라지고 당장 근심과 걱정, 회개, 슬픔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는 인간이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기뻐하며 살아갈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삶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염려와 유혹입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산다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단은 인간에게 뿌려진 씨를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생명의 길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 그런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사단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고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좋은 밭 ●

그러면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무엇일까요?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히 맺어집니다. 즉 땅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자는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만 맺어집니다. 과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자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 밖에서는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은혜를 평가하게 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 주어진 것을 은혜로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 즉 저주에 갇힌 자가 자신의 실상임을 보게 되면 은혜는 자신을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한 결실은 상한 심령이 되어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너털너털한 겉과 같은 자신의 속 실체를 보면서 도덕과 윤리로 포장한 채 그럴듯한 인간으로 행세했던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에 불들려 살아 감으로써 말씀의 존귀함까지 무시한 채 염려와 유혹 속에 살았던 자신을 보게 되면서 천국 가겠다는 것까지도 욕망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애통과 회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새롭게 탄생되는 좋은 땅입니다.

사 10:20-22절을 보면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무너지지만 야곱의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뜻합니다. 자기를 친 자,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애초에 남은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함께 함으로써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능력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도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여호와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좋은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은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자’ ‘열매를 맺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야 말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게 되고 그 의를 의지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의에 대한 것이고, 자연히 자신의 의와 공로는 부셔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며 좋은 밭은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일오후 설교



감사하라

골 3:15-17

(20강 4.25일 설교)

신자에게 감사는 자기부인이 바탕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감사는 자기부인이 아닌 자기 만족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타인보다 더 나은 자신의 외적 형편과 조건 등을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만족을 감사라는 명분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보다 나은 것이 없을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감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뒹집진 채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자가 자신을 위해 발버둥 치며 애를 태워야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못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타인보다 더 나은 것으로 흡족해하며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집착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기부인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자기사랑이 중심이 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아닌 것이며,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감사하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감사할 것을 세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고, 사도가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선생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참된 신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거짓선생들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교회는 할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이고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신자가 동일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아래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나 절기처럼 외적인 행함과 실천을 참된 믿음의 증표로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행함과 비교하면서 좀 더 우월한 자신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눅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눅 18:11-12)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감사가 참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감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할 뿐입니다. 누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참된 감사는 자기부인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감사는 세리와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는 자기부인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신자는 내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신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신자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인 것처럼 가르침으로 인해서 행함과 실천이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신앙에 만족해 할 때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는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기도를 한 후 ‘40일 금식기도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명목으로 감사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는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를 한다는 구별의식도 있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다는 자기 자랑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감사입니다.

만약 금식기도를 마치게 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진심이라면 40일 금식기도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 하지도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금식기도를 따로 떼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금식기도를 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현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런 생각으로 존재한다면 할례를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행함과 실천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행함과 실천으로 인한 차별은 자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강 역시 인간의 친분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자기를 부인한 자로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는 말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의 평강은 신자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모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에서는 인간이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이 감사와 자랑거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서로의 행함과 실천을 나타내고 그것을 비교하는 자로 모인다면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뿐이고,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나는 너와 다르다’ 는 의식을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 몸의 관계가 깨어진 분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현대 교회들처럼 단순히 감사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는 사도의 말에는 자신의 행함이나 실천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신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무엇으로도 잘난 자와 못한 자로 구별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됨과 높아짐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자신만 보일 뿐이고 신도 자신을 좀 더 완벽한 존재로 그 질을 향상시켜주는 도움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인한 인간됨은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인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다만 우월과 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자신의 현재 조건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감사가 난무할 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가 아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섬기는 종교인으로 모이고 있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비교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해 형편없는 조건과 모습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당당하게 말씀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셨고, 세상에서의 조건이나 형편은 말 그대로 무가치한 것이었기에 비교할 필요성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신자는 그 무엇으로도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행함과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 역시 비교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해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한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선교를 했다고 해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설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다른 행함과 실천이 있는 사람으로 모인다고 해도 자기 것을 내어 놓고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신자의 관계에서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수준 높은 신자가 수준 낮은 신자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말씀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자신을 가르친다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학식과 수준 높은 조건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마치 많은 목사들이 박사 학위를 동원해서 자신의 수준 높음과 실력을 자랑함으로써 교인들을 복종케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신자를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말씀이 풍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신자에게는 자신이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오후 설교



두 안에서의 삶

골 3:18-4:1

(21강 5.2일 설교)

현대 교회는 신앙생활을 매우 강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 신앙생활은 중요하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없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며 믿음 또한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에 언급되는 내용을 문자대로 실천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실천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실천을 신앙생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생명에 속한 자로 존재합니다. 그 외 다른 인간상은 예수 안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밀어낼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안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본질이 저주에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는 도덕과 윤리 등 우리를 덮고 있고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속살이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덮고 있는 거룩한 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죽은 자인 나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써 하늘에 생명에 참여하게 된 감격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뛰어나고 수준 높은 다른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행하고도 믿음은 커녕

마귀의 자식으로 선언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식의 신앙생활이 구원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생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구원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인간의 종교적 실천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마치 신앙의 삶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은 마치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일상생활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이라는 범주에 속해있습니다. 사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에베소서보다는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 은혜가 어떠한가를 증거해야 할 도구로 세움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교회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보다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도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선생들로 인해서 믿음에 혼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평범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고, 따라서 보이는 것이 없으면 신앙 또한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모든 혼란은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신자는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흠없고 완전한 자로 세움 받았습니니다. 이러한 신자의 존재성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실천이나 행함의 문제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에 맞고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천과 행함을 통해 자기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입니다.

사도는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주 안에서의 삶은 가정이나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그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이 증거됩니다. 즉 믿음의 삶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자녀는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도 주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고 말한 후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는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종이라고 해도 상전을 의식하며 일하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질 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상전에게 잘 보여서 상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상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살지 않고 상전과 상관없이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목사를 의식하고 목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믿음 좋다’ 는 말을 듣기 위해 봉사하고 충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디를 가든 주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해도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정신이 흘러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 안의 세계는 주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세계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세계는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는 믿음의 수준이 나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신을 자랑할 필요 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면 됩니다.

이러한 주 안의 세계에서는 잘난 자, 못난 자의 구별이 없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교회며 주 안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교회됨을 놓치면 안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가 불러 쓰시는 도구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도구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로 주가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염려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책망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암 8:11-14

(16강 4.21일 설교)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라” (11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에만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입니다. 기근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만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기근을 이용할 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립은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오히려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을 보내어 궁궐을 사르겠다는 것이 더 심판다운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인간은 자기 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고 갈급해 하는 것도 몸을 지탱하는 일에 있어서 없으면 안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에 있어서 없으면 안되는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 있는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고 교양 있는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몸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적절한 인격인 것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기를 원한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 그것이 자기 몸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지 진심으로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갈급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전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없으며 따라서 심판으로서의 효과도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고통을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말은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 아모스 8:11-14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했으니 벌 받아라’ 는 의미로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심판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실시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행함을 근거로 하여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사고방식의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신자일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반응은 주로 후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복과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은 행함과 실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늘보다 내일 점차 더 나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들은 구원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자신이 책임지고 사는 것처럼 구원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여부를 자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부를 자신에게서 확인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겠습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행함 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 행함이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버리신다는 의미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시 42:1-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고통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이 심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공감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 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상생활에 마음의 전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두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잘라냄이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 즉 긍휼과 자비를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알 것입니다.

12,13절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고 말합니다.

말씀을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기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많고 말씀은 풍성한 것 같지만 참된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닫혀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망도 갈급함도 없습니다. 다만 몸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끝은 저주와 멸망일 뿐임을 생각한다면 말씀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몸을 향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풍족합니다. 세상은 이 풍족에 붙들려서 땅의 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한 신자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참된 것 보다는 세상의 풍족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실상을 예견하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세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모래 위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이러한 무지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음으로써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습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는 세상의 부요가 행복이 아님을 알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운 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아님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새롭게 생성된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간상은 모두가 욕망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적어도 주어진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는 말씀에 갈급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를 고통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셨던 새 이스라엘입니다.

수요일 설교



피할 수 없는 심판

암 9:1-10

(17장 4.28일 설교)

아모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모스를 이스라엘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장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입을 막고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듣는 자의 입장이나 반응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 도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기를 위한 삶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쪽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민족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의 길이 어떠한가를 모릅니다. 이들에게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 길을 돌이켜 여호와를 찾으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도 없는 불의한 자로 여기는 말이 듣기 싫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어야 할 도구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것보다는 현재의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보여주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보다는 자신들의 원하는 이스라엘로 세상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암 5:24절의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스라엘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구원과 복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서 악을 보게 되는 사람에게 죄와 심판의 선포는 자신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죄와 심판의 선포는 귀를 막고 싶은 불편한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단은 제사를 행하고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단의 기둥이 무너지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나 제물이 전혀 신앙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참된 신앙으로 인정될 것이고,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로 일컬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는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무도 자기 의와 공로를 보이며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2-3절에서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 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의 죄는 드러날 것이고, 무엇으로도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욥 2: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물론 무작정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와 이름에 담겨 있는 긍휼과 자비만이 생명이며 구원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을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신명기의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자는 어디에 가든 복이 함께 하는 자로 존재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여호와와 말씀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저주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아예 저주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없는 자는 부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상관없이 저주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신자라면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껌데기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부자도 권력자도 비참한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의 의가 흐르는 그들만이 복된 자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박살내어서 아예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사랑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박살내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심을 진정한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종교적 열심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형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0절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근거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가 없고, 모든 죄인은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명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자의 죽음으로 간주하고 넘어가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와 행함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망하는 죄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이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남겨 놓고자 하시는 신자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73장(통73)
교 독 문	80(고후4)
기 도	이영민 장로
찬 송	287장(통205)
성경봉독	마 13:18-23
설교제목	비유의 해석(87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46장(통221)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통6)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의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236장(통223)
기 도	김종만 집사
찬 송	560장
성경봉독	골 4:7-18
설교제목	사도의 문언(23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00장(통235)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최두임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오바다 강해(2강)

하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신 윤 식



하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다른 이보다 완전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초라하고
못나고 약한 나이지만
하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다른 이보다 값있고
착하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나이지만
하늘은 그런 나를
다스리고 고쳐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나 같은 자를 고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 되어
방황하다가 당신을 만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교회소식

1. 남해에 있는 중평교회가 늙은 예배당 보수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기에 다음 주에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시골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참조하시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오후예배 후에 동부노회 청년회 총회가 은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